

# 宣祖 國文 諭書의 國語學的 意義

李秉根\*

## 1. 序 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宣祖는 한글 簡札 즉 諺簡을 남긴 바 있다. 이 諺簡들은 翁主나 淑儀 등 주로 여자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거의 1세기 반이 지난 당시에 비록 여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는 하나 임금이 한글로 편지를 썼다는 사실은 한글 보급의 역사에 지니는 의의가 사뭇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를 諺簡이 비록 분량은 적더라도 16세기와 17세기 교체기의 국어, 특히 口語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國語史的으로 의의가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16세기 중·후반, 말하자면 훈민정음 창제 1세기만에 비록 選民들이 漢文을 즐겨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諺簡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문자가 당시에 상당히 보급되어 생활화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졸고 1996).<sup>1)</sup> 漢文, 國文 또

---

\* 본과 교수

1) 물론 15세기와 16세기 교체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연산군일기』에는 諺文 사용과 관련된 기사들이 간혹 보이는데, 죽은 궁녀의 제문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여자 의원을 시켜 읽게 한 것이라든가(권56, 연산군 10년), 언문 해독 가능한 여자를 각 원

는 國漢文이 그 필요한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였음은 1536년에 세운 이른바 <靈碑>에서도 알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비석의 4면 중에서 3면은 모두 한문으로 쓰였으나 왼쪽(서편) 옆면에는 “녕한비라거운사르문지화를니브리라 이눈글모르는사름드려알위노라”라고 國文으로 쓰였다. 漢文을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國文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생활을 영위하던 시대에 宣祖는 26년(萬曆 21년, 1593년) 9월에 이른바 ‘宣祖國文敎書’라 불리는 문서를 남겨 놓게 되었다. 이 문서는 임진왜란으로 義州로 파견하여 환도하기 1개월 전에 내려진 것인데,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협조하고 있던 백성을 謂諭하여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國文으로 宣祖가 썼던 것이다. 당시 金海守城將으로 있던 權卓(1544~1593)이 이 문서를 가지고 포로인으로 가장하여 적진에 숨어들어가 왜군 수십명을 죽이고 포로로 있던 우리 백성 100여 명을 구출하여 나왔다 하는데, 그 후손 집에 보관되어 오다가 철종 6년(1855)에 金海市 興洞에 御書閣이 세워지면서 이곳에 보관되어 權聖乾씨에 이어 현재 權道씨가 소장하고 있다 한다.<sup>2)</sup> 1988년 6월에 보물 제951호로 지정되었다.

이 문서는 1장 449字로 75.0×48.8cm 크기의 楷紙 필자본 원본인 古文書이다. 지면의 세 군데에 ‘諭書之寶’란 御寶가 찍혀 있는바, 이로부터 이 문서가 흔히 불리듯이 教書인가 아니면 御寶에 따라 諭書인가 하는 의문이 우선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서 純國文으로 쓰여 있어서 비록 필사본 449자의 소량인 자료이기는 하나 16세기 말엽의 국어연구에 있어서 이 자료가 갖는 國語學的 意義가 어떠한가 하는 과제가 국어학 연구에 부여될 수도 있다. 본고는 바로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생각하여 보기 위한 것인데, 필자로서 국어학에 초점을 맞춤은 물

에 2인씩 들여 보내게 했다는가(권62, 연산군 12년)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연산군 스스로가 국문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그들 국문 자료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2) 1996년 12월 14일부터 1997년 2월 11일까지 湖巖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朝鮮前期國寶展에 전시되고 있어서, 필자는 그 원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역시 <宣祖國文敎書>라 불렸다. 이에 대해 이미 『鄉土研究』 제3집(충남향토연구회, 1986)에서 <宣祖人王의 國文敎書>라 하여 보고된 바 있고, 보물 제951호로 지정되면서 『宣祖國文敎書調査報告書』(李廷燮, 文化財管理局 1988)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사전 항목으로 <宣祖國文敎書>가 실렸다.

론이다.

## 2. 教書인가 謂書인가

우선 이 문서를 검토하기에 앞서 원문부터 보자(띄어쓰기는 필자가 하였음).

벽성의게 니르는 글이라

님금이 니르샤더 너희 처엄의 예손더 후리여서 인호여 돈니기는 네 본 모움이 아니  
라 나오다가 예손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도르혀 의심호더 예손더 드렷던 거시  
니 나라히 주길가도 두려 이제 드리 나오디 아니호니 이제란 너희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서른 권호여 다 나오면 너희를 각별이 죄 주디 아닐 쁰니 아니라 그  
등에 예룰 자바 나오거나 예 호는 이를 조세 아라 나오거나 후리인 사룸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아무란 공 이시면 낭천 물론호여 벼슬도 호일 거시니 너희 성  
심도 전의 먹던 모음을 먹디 말오 셀리 나오라 이 빤들 각쳐 장슈의손더 다 알  
외여시니 싱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너희 등의 혈마 다 어버이 쳐즈 업손  
사룸일다 네 사던 터 도라와 네대로 도로 살면 우연호라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게도 주글 거시오 나라히 평명호 휘면 너흰돌 아니 뉘오초라 흔물며 당병이  
황희도와 평안도에 گ득호였고 경상전라도에 گ드기 이서 예 곧 과글리 제 짜히  
곧 아니 건너가면 요소이 합병호여 부산 동니 인는 예돌흘 다 텔 쁸이 아니라  
강남 비와 우리나라 비를 합호여 바른 예나라회 드러가 다 분탕흘 거시니 그저  
기면 너희조차 빠러 주글 거시니 너희 서른 널러 그전으로 수이 나오라  
만력 이십일련 구월 일

위의 문서에 대해 몇몇 서술이 있어 왔는데, 그 모두가 '선조국문교서'라 하여  
교서로 보았으며 '教書'로서 보물로 지정되었다. 필자는 古文書學에 대하여는  
문외한이다. 그럼에도 이 문서를 教書로 보아야 하는지 의심을 품어 본다. 과연  
教書인가 아니면 謂書인가.

教書의 경우 그 教書式은 崔承熙(1995: 65)에 따르면

教(具銜姓名·對衆人則某某人等)書

王若曰云云故茲教示想宜知悉

年號幾年某月某日

과 같고 또는 求言教書일 경우

王若曰云云咨爾政府體予至意布教中外  
成使聞知 또는 咨爾臣僚體予至懷

와 같다. 宣祖의 국문 문서와 이 教書式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인 공통점이 보인다. ‘님금이 나르샤더’로 시작됨은 곧 ‘王若曰’과 같고 筆寫年月日이 있음은 이 문서를 教書로 볼 만하다. 그러나 文末의 양식 즉 結辭는 들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教書에 흔히 찍히는 ‘施命之寶’가 없고 ‘諭書之寶’가 찍혀 있는 것이다. 諭書式은 역시 崔承熙(1995: 70~71)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諭具銜姓名  
鄉受委一方體任非輕凡發兵應機安民制敵…  
應常事自有舊章慮或有予與鄉獨斷處置事非  
密符莫可施爲且意外姦謾不可不領防如有非  
常之命合符無疑然後常就命故賜押第機符鄉  
其受之故諭  
年號寶幾年某月某日

이 諭書式과 선조의 국문 문서를 비교해 보면 역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문서의 첫머리에 “백성의 게나르는 글이라”라 한 것은 諭書의 그것과 일치하나 끝머리 부분의 結辭는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筆寫年月日이 있으면서 그 위에 諭書之寶를 찍은 것은 諭書의 양식에 따른 것이다. 教書에 찍히는 寶, 印 등이나 그밖의 手訣도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對百姓用印 이 문서는 結辭式은 갖추지 않았으나 起頭의 王若曰에 해당하는 “님금이 나르샤더”로 보면 教書에 속하고 그리고 “백성의 게 나르는 글이라”와 諭書之寶라는 御寶를 보면 諭書라 할 만하다. 현재로서는 諭書와 함께 임금이 내려 주는 術符는 확인할 길이 없어 더욱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諭書之寶가 세 군데나 찍힌 것을 중시하여 教書보다는 諭書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할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諭百姓書’인 셈이다.

임금 宣祖가 백성을 특히 왜군에게 잡혀 나오지 못한 포로인들이 왜군을 잡아 나오거나 왜군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나오거나 잡힌 백성을 많이 데리고 나오도록 회유하면서 나아가서 良賤을 물본하고 벼슬도 시킬 것이라는 약속까지 함과 동시에 이 뜻을 이미 각처의 장수들한테 다 알렸다는 것인데, 이

로부터 각처의 장수들에게는 혹시나 教書를 내렸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教書를 내리고서 良賤을 물론하고 회유하기 위하여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論書를 내렸던 것은 아닌가 한다. 論書之寶는 起頭와 筆寫年月日 위에 각각 찍혀 있고 또 전체의 중앙 위치의 ‘…뿐니 아니라 그등…, …공 이 시면 낭천 를…, …장슈의손더 알…’ 위에 찍혀 있다.

임금에 의해 난중에 쓰인 16세기말의 이 한글로 쓴 문서에 들어 있는 국어 자료는 비록 그 분량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良賤을 물론하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당시의 국어 자료인 셈이다.<sup>3)</sup> 말하자면 왕의 對私民 文書로서 전국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아니면 이해될 것으로 믿은 16세기말의 국어 자료이다. 그러기에 국어학 특히 국어사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되는 것이다.

### 3. 국어 자료로서의 宣祖 國文 論書

선조 국문 유서인 이 문서는 국어 자료로서는 어떤 성격을 지녔는가? 당시의 언어·표기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가? 우선 표기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자. 이 필사본 문서는 16·7세기 謢簡들과 비슷하게 당시의 표기상의 몇몇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우선 文字體系에서 보면 ‘ஃ’(예, 수이<수비>)은 물론이고 ‘ㅎ’과 ‘△’ 그리고 ‘ㅇ’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

- a. 주글가도, 주길가도, (아닐 뿐니, 덜 뿐이), 분탕흘 거시니, 주글 거시니
  - b. 처엄의, 모움이, 모음들, 어버이, 요소이
  - c. 빅성의계, 그 둘에, 공 이시면, 낭천을, 싱심도, 장슈의손더, 너희 등의, 평명호, 당병이, 황현도와, 평안도애, 경상전라도애, 합병호여, 부산 동니, 강남 비와, 분탕흘
- a는 15세기에 ‘ஃ’으로도 쓰일 수 있었던 것이 ‘ㄹ’로만 쓰임을 보인 예들이고 b는 ‘△’이 ‘ㅇ’으로 쓰인 예들이며, c는 종성의 ‘ㅇ’ 대신에 연철됨이 없이 ‘ㅇ’이 쓰인 예들이다.

3) 宣祖가 난중에 淑儀에게 보낸 謢簡(1597년 경)은 잘 알려져 있다. 論書와 함께 이 시기의 귀중한 국어학 자료가 될 것이다.

‘**ㅋ**’은 흔히 전청자 앞에서 쓰이기도 하였으나 각자병서와 ㅅ계 합용병서 앞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16세기에는 ‘**ㅋ**’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았기에 16세기 말엽에 보이지 않음은 당연하다. 16세기 후반에도 기대될 수 있는 문자와 그 해당 음소의 하나로 ‘**△**’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요소이’ 등은 물론이요 상당히 뒤늦게까지 쓰이던 ‘**ㅌ**’도 ‘**ㅌ**음이, ㅌ음물’로 나타나 /△/을 보여 주지 않는다. 16세기 후기 자료로 알려져 있는 <淸州北一面 順天金氏墓出土 簡札>들에는 ‘**ㅌ**슨미, ㅌ으물, ㅌ슨미’ 등이 등장하여 대조적이다(졸고, 1996). 임금의 글이 현실 언어를 더 잘 표기해 반영한 셈이다. 종성으로 쓰이던 ‘**ㅎ**’이 16세기 말엽에는 ‘**○**’으로 대체되어 사라진 것으로 흔히 보아 왔는데, 역시 이 문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順天金氏墓에서 출토된 謠簡들에서도 ‘**ㅎ**’은 쓰이지 않았다. 필사본에서는 ‘**ㅎ**’은 흔히 쓰이지 않는다.

어두에 각자병서가 쓰인 예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합용병서가 쓰인 예로는

쑨, 셀리, 짜회, 빙돌, 빙러

들이 있어서 ‘ㅅ’계병서로 ‘**ㅆ**’과 ‘**ㅈ**’ 그리고 ‘ㅂ’계병서로 ‘**ㅃ**’과 ‘**ㅉ**’을 확인할 수가 있다. ‘**ㅉ**’계병서의 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병서가 쓰인 예들이 ‘쑨’ 이외에는 각각 한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음운론적 해석은 쉽지가 않다. 모두 15·6세기의 표기를 따르고 있어서 된소리화의 과정을 알려 주지 않고 있다. ‘**ㅉ**～**ㅆ**～**ㅅ**’, ‘**ㅉ**～**ㅈ**’, ‘**ㅉ**～**ㅊ**’ 및 ‘**ㅉ**～**ㅋ**’ 등을 보인 順天金氏墓 출토 謠簡들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이 문서만의 자료로는 ‘ㅂ’계병서들이 자음군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 시기에 쓰이던 표기를 음운변화에 관계없이 그대로 후세에 따른 역사적 표기의 하나로 보아야 할지 밝히 말할 수는 없다.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한 예로

부산 둑너 인눈 예돌흘

에서의 ‘동너’와 ‘인눈’이 있다. ‘인눈’은 16세기에는 일반화되었던 예로 /ㅅ→ㄷ/ 을 전제로 한 자음동화라 할 수 있다.<sup>4)</sup> 그리고 한자어의 표기에서 보기 드물게 등장한 ‘동너(東萊)’는 비음끼리의 결합에 따른 자음동화로, 말할 것도 없이 /ㄹ

4) ‘돈니기눈’은 이미 15세기에도 ‘돈니-～돈니-’를 보였던 예로 보아 새로운 어형은 아니다.

~ㄴ/의 교체를 보인 것인바, 구어 표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ㅎ’ 종성체언의 표기는 15세기만큼이나 철저하다.

나라히, 짜히, 예돌흘, 예나라희

즉 ‘ㅎ’의 탈락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ㅎ’ 탈락을 보이지 않은 표기들도 있다.

너희, 너희를, 만히, 너희등의, 너희들, 너희조차

다만, ‘각별이’가 돌보이는데, 이는 《小學諺解》에

각별이 詩를 지어(五 7)

와 같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에는 ‘ㄹ’ 다음에서 ‘ㅎ’이 이미 탈락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翻譯小學》(八 20)에는 “각별히 보티홈도 없으며”처럼 16세기 전반에는 아직 ‘ㅎ’이 유지되고 있었다. ‘ㅎ’이 탈락한 경우에는 ‘각별이’처럼 선행하는 ‘ㄹ’이 연철되지 않고 있다.

종성 ‘ㄹ’ 다음에서 ‘ㄱ’이 ‘ㅇ’으로 나타나던 15세기의 현상은 이 문서에서는 혼동을 보이고 있다.

- a. 그런 의심을 먹디 말오
- 전의 먹던 모음을 먹디 말오
- b. 싱심도 의심 말고

‘말오~말고’의 혼동은 이 시기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16세기의 諺簡들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이다.

모음 표기와 관련된 상태를 보아도 이 문서의 국어는 16세기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의 경우가 그러하다.

- a. 빠돌, 예률, 모음을, 예돌흘, 빠를
- b. 업순
- c. 서르~서르, 모음이~모음을

a는 조사의 경우이고 b는 어미의 경우인바, ‘.>—’와 ‘—>.’를 보이고 있다. 어간형태소 즉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의 혼동은 c의 ‘서르~서르, 모음이~모음을’

에서 보인다. ‘-아/-어’ 계의 문법형태소가 어휘형태소에 비해 그 혼동의 정도가 크지 않았나 여겨진다. 어휘형태소 내부에서의 ‘-’의 혼동은 물론 제2음절 이하에서 혼히 일어난다.

‘-아/어’의 경우에는 15세기에 비교적 교체가 분명하였다. 15세기에 “아디 몬호예이다(法華經 1: 164)”, “서로 枕帶호예는니(杜初 7: 23)” 등과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호-’의 경우 ‘호여’로 쓰임은 16세기에 혼한 일이었는데, 이 문서에서도

인호여, 권호여, 물론호여, icode; 호엿고, 합병호여, 합호여  
와 같이 ‘-호여’로만 나타나 있다. 그밖에 ‘알외여시니’와 같은 경우도 보이고 있다. ‘알외-’는 16세기에 ‘알위-’로도 쓰이고 있었기에 ‘알외여시니’의 ‘-여-’가 ‘알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15세기의 ‘괴여(訓民正音 合字解)’와 같은 유형 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小學諺解》(5: 10)에 “내 아화 되엿어니” 등이 쓰인 것을 보면 적어도 16세기 후기에는 ‘알외여’가 일반적이지 않았나 한다. 당시의 諺簡들이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가 결합하면 혼히 하나의 음절로 묶이게 되는데, 이 문서에서는 “나라히 평령호 휘면”的 ‘후(後)+ - 면→휘면’뿐이다.

모음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것으로 ‘뉘오초라’와 ‘그저기면’이 있다. ‘뉘오초라’의 ‘뉘옹-’은 《李朝語辭典》에 의하면

뉘옹고 고털 줄을 아디 몬흥이(小元五 11)

도록혀 뉘옹처( 三江孝 1)

무궁호 뉘옹처이 되느니라(警民 16)

常常 이를 뉘옹처만 흐는 날을(新語 九 20)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6세기 말엽 이후에 등장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주로 ‘뉘옹-’이 쓰였다. 몇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뉘옹처 도로 오려 호더니(석六 19)

닐오더 須達이 뉘옹디 말라(석六 19)

아디 몬호물 뉘으초너라(法華四 36)

넘디 몬호물 뉘옹놋다(杜 초十六 25)

cf. 뉘웃분 모수물 아니호리라(석六 8)

뉘으쳐 貴호문(法화四 36)

그런데 16세기 말엽의 《小學諺解》에서는 ‘뉘옻-’, ‘뉘옻-’과 ‘뉘운츠-’가 쓰이고 있다.

뉘옻고 고틸 줄을 아디 몽흘이(五 11)

그릇 훗고 뉘우 츨 줄을 아디 몽흘이(五 11)

뉘옻고 붓그려 훗아(五 106)

그릇 훗고 能히 뉘운츠며(五 9)

그리고 17세기에도 특이한 ‘뉘잇-’ 이외에 ‘뉘옻-’, ‘뉘옻-’과 ‘뉘옻쁘-’가 쓰였다. 이로부터 보면 ‘뉘옻-’ → ‘뉘옻-’ → ‘뉘옻-’의 변화를 겪은 것이 16세기 후기가 되는데, 이 문서의 ‘뉘옻-’이 바로 그 시기의 언어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모음 조화에 역행한 대표적인 예의 하나인 것이다. 15세기의 ‘두루’가 16세기에 ‘두로’로도 나타나는 현상과 평행되는 셈이다.

또다른 모음변화의 예가 ‘그저기면’인데, 우리가 가정해 온 것은 15세기의

그저기 六師 | 나라해 出侖호더(석六 27)

와 같은 ‘그저기’로부터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자음 다음에서 ‘니>ㅣ’로의 변화가 제2음절 이하에서 일어난 시기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그 적+의 (면)’의 경우는 아니나, 이와 유사한 ‘이기-(勝)’가 《龍飛御天歌》나 《月印千江之曲》에 ‘이기-’로 나타남은 이들 문헌의 重刊으로 말미암은 때문이라고 본 적이 있다(白頭鉉 1992, 주24). 그런데 《月印千江之曲》에는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 《楞嚴經》 등의 ‘이기-’와는 달리 ‘이기-’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 보물 제398호로 지정된 舊陳家永藏本에 그러하다.

:돌·회·침·울·흔·뼈 이·기시·니(其 三十九)

따라서 15세기에 ‘이기-~이기-’가 공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저기’의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한 “그저기 六師” | 나라해 出侖호더” 외에도 “그저기 臣下 | 며(月印釋譜 2: 76)” 등과 같이 ‘그저기’로는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기->이기-’가 제2음절 이하에서의 ‘니>ㅣ’를 보인

선배요 '그저과>그저기'는 후배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문서의 '그저기면'은 16세기 말의 언어현실 즉 '나>ㅣ'를 반영한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음화와 관련이 있기는 하나 이중모음으로서 부수적이었던 조사 '-의'가 'ㅣ'로 실현된 사실이다. 상당히 이른 시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刊本들에서는 성조를 나타내던 傍點이 16세기까지 보이고 17세기에도 더러 쓰인 일이 있으나 寫本 즉 謄簡들에서는 일찍부터 쓰이지 않았다. 16세기 중·후기의 것들이 그러하며 17세기 전기의 자료로 보이는 <晋州河氏墓出土 謄簡>들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宣祖의 御筆 謄簡들도 마찬가지인데, 宣祖의 國文 諭書에서도 傍點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16세기 후기에 성조가 상실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音節과 그 단위의 표기인 字節은<sup>5)</sup> 16세기에 일반화된 경향을 역시 이 문서는 따르고 있는바, 연철, 분철 및 중철로 나누어 기술한다.

### ① 연철의 예

- a. 주글가도(죽-), 드렷던(듣-), 주길가도(죽이-), 자바(잡-), 아래(알-),  
더브러(더블-), 업손(없-), 도라와(돌-), 주글(죽 ), 드러가(들-), 빠라(빠-)
- b. 거시니(것-), 거시오(것-), 그저기면(적-), 빼둘(뜰-), 이룰(일-)
- c. ㅋ득기(ㅋ득-), 만히(많-)

위의 예 a는 모두 용언활용형으로 용언은 어간말자음 하나를 모음어미로 옮겨 연철시키는데, 예외가 없다. b는 '것', '적'과 같이 체언이라도 비자립적인 경우에는 역시 연철시킨 예들이다. 다만 '이룰'의 '일'은 자립적이기는 하나 "흐는 이룰"의 경우에는 비자립적인 성격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런데 宣祖 30년 (1597)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宣祖의 淑儀에게 보낸 御筆 謄簡에서도 "천장은 나라 이리 하 어웁소니"처럼 '이리'로 연철하고 있다. 적어도 宣祖에게는 '일'의 경우 '것'과 마찬가지로 딴 체언들과는 달리 연철표기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뜰'의 경우에는 어간말자음이 'ㄷ'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c는 용언

5) 음운상의 단위인 音節에 해당하는 표기단위의 명칭이 국어학에는 없어서 졸고(1996)에서 이를 '字節'이라 불리 보았다.

으로부터 파생된 부사들인데, ‘만히’와 같이 둘 받침인 경우에는 둘째 받침이 연음화되어 연철됨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仄드기’와 같은 파생부사의 경우에도 연철이 일반적이다. 이상의 연철 표기는 아래의 분철 표기와 대조하여 보면 그 구별이 확연하여질 것이다.

## ② 분철의 예

- a 빅성의계, 그 등에, 너희 등의, 당병이, 평안도에
- b. 님금이, 처엄의, 므옴이, 의심을, 사롬을
- c. 견의, 그견으로, 뿐이 아니라
- d. 글이라
- e. 말오, 각별이, 알외여시니

위의 분철 표기의 예들은 음절말 종성의 받침이 ‘ㆁ, ㅁ, ㄴ, ㄹ’인 경우이다. 즉 不淸不濁字들이다. 이들 받침의 경우에 분철을 행한 대표적인 15세기의 문헌이 아마도 《月印千江之曲》(上)일 것이다. 15세기 문헌들에서 체언과 조사, 용언어간과 어미를 분철한 예는 극히 예외적인 정도인데, 유독 《月印千江之曲》(上)만이 不淸不濁字에 한해서 그것도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그리고 일부 용언 활용형에서 분철을 하였다. 기존의 표기법 연구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ㆁ’을 제외시키곤 하였으나<sup>6)</sup> 한자를 단 한자어(예 광光明을)를 제외해도

제 스승을 곤 낫거호니(112)

와 같이 쓰인 바 있다.<sup>7)</sup> 《月印千江之曲》과 이 문서를 비교해 보면 종성 ‘ㆁ’의 유무 및 용언 활용시 ‘ㄴ, ㅁ’ 등의 연철이 차이를 보인다. 말하자면 용언은 연철이 원칙이고 체언은 不淸不濁字가 받침인 경우에 분철이 원칙이었던 셈이다.<sup>8)</sup>

6) 安秉禱(1988)에서는 ‘ㆁ’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로 ‘종을(奴)’을 들었다.

7) 15세기에 《月印釋譜》에서 체언 곡용시에 ‘ㆁ’의 분철표기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이어서 ‘ㅁ, ㄴ, ㄹ’ 외에 ‘ㄱ, ㅂ’ 그리고 ‘ㅋ, ㅌ’ 나아가서는 ‘ㄷ’도 더러 분철되어서 차츰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李翊燮 1992).

8) 불청불탁자인 ‘ㆁ, ㄴ, ㅁ, ㅇ, ㄹ, ㄷ’ 여섯 자는 《訓民正音》(終聲解)에 따르면 平上去聲의 종성이 되고 緩急의 대립에서 ‘느린(緩)’ 쪽이 된다.

분철을 보인 e의 예들은 사정이 다르다. ‘말오’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말고’로의 통일 과정에 있는 ‘ㄱ’ 탈락의 경우이고 ‘각별이’도 ‘각별<sup>ㅎ</sup>-’와 비교할 때에 역시 ‘ㅎ’ 탈락의 경우로 의식하여 분철한 것이다.<sup>9)</sup> ‘알외여시니’는 ‘줄외-’ 등과 평행하게 역사적 표기를 보인 것이다. 앞에서 ‘갓드기’가 파생부사 이면서도 연철을 보인 것은 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 때문이라면, ‘각별이’나 ‘알외여시니’는 이와 구별한 셈이 된다. 16세기 후반의 『小學譜解』에서 볼 수 있는 한 형태소 안에서의 분철(예 ‘줄아디, 줄으침이 등)은 이 문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중철 표기가 일부 나타난다.

### ③ 중철의 예

모음이~모음을, 뿐이~뿐니

위의 두 예뿐인데, 그것도 고정적이지는 않다. ‘ㅁ ㄴ’에 한정된 것이 특이하다. 중철이 만일 연철과 분철의 중첩이라면 분철이 제언 곡용시에 不淸不濁字가 받침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정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6세기에는 8종성 거의 모두가, 중철 표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물론 ‘ㅇ’의 중철 표기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

이상으로 표기상의 몇몇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는 16세기 후반의 그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자료들이 돌보여 국어음운사 연구에 보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어휘적인 면을 보자. 일부 어휘를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하려 한다.

#### ① ‘후리이-’

- a. 너희 처엄의 예손티 후리여서
- b. 후리인 사람을 만히 더브러 나오거나

9) ‘각별이’와 함께 분철한 예로 ‘특별이’가 15세기에 있었는데, 이들의 파생어 구조에 대한 인식을 업사리 할 수 있음은 한자어계 파생어란 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는 한자+懸音으로 흔히 표기되는데(일부 문헌에서는 그 반대로) 이 경우에 자연히 연철표기는 있을 수가 없다.

‘후리이-’는 말할 것도 없이 ‘N을 후리-’의 피동형이다. ‘| + |’와 같은 동일 모음의 충돌 연쇄임에도 이 모음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채로 쓰이고 다만 ‘후리이+어서→후리여서’와 같이 활음화에 의하여 삼중충돌만을 회피하고 있다. ‘가오 누르이니오(救急方 上 25)’나 ‘찌인 것 업게 허고(分門瘧疫易解方 13)’ 등과 같이 피동형의 경우 모음충돌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 ‘후리-’와 ‘후리이-’는 ‘掠’을 주로 뜻하는데, 16·17세기에 물론 쓰였다. 《17세기 국어사전》(1995)에 나타난 예를 보면 모두 《東國新續三綱行實》에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 허시 그오더 지아비 죽고 즈식이 쏘 후리이니(5: 16b)
- 명유외난의 도적과 후리이를 니버(8: 80b)
- 예게 후리이를 니버(5: 38b)
- 도적의계 후리이를 니버(7: 57b)
- 다 왜적의 후리인 배 되여(7: 9b, 8: 59b, 8: 79b)<sup>10)</sup>

이 ‘후리이-’는 현대어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아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사라졌다. 다만 능동형인 ‘후리-’가 ‘掠’ 이외의 여러 뜻으로 분화되어 쓰이고 있을 뿐이다.<sup>11)</sup>

## ② ‘예’

- a. 처엄의 예손더 후리여서
- b. 나오다가 예손더 들려 주글가도 너기며
- c. 예손더 드렸던 거시니
- d. 그 둘에 예를 자바 나오거나
- e. 예 흔는 이를 주세 아라 나오거나
- f. 이제 곧 아니 나오면 예개도 주글 거시오
- g. 예 곧 과글리 제 짜희 곧 아니 건너가면

10) (8: 59b)에는 “흔가지로 후니인 나득호드려 넓어 굽오더”처럼 ‘후리인→후니인’으로 표기 되기도 하였다.

11) ①휘둘러서 물다 ②모난 곳을 깎아 버리다 ③급작스레 차서 빼앗다’ 이외에 ‘매력으로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빼앗다’의 뜻을 흔히 추가하여 신고 있는데, 이는 ‘호리다’와 짹이 되는 것으로 分割排列해야 옳을 것이다.

h. 부산 동네 있는 예돌хи 다 틸 쑨이 아니라

i. 바로 예나라희 드러가다

이 문서에는 모두 '예'로 나타나고 '왜(倭)'로는 한번도 쓰이지 않았다. 임금의 백성에 대한 공문서에 이렇게 '예'로 나타났다면 공식어로서는 日本을 '예'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宣祖가 淑儀에게 보낸 謂簡에서는

왜적도 乞을히 전라도 터려 혼다 호는 고별도 이시니

와 같이 '예' 대신에 '왜'를 쓰고 있다. 이 '예'는 15세기에도 쓰였던 것이다.

請으로 온 예와 싸호사(용가 52장)

예돌히 사홍 세워(二綱行實圖 忠 35)

부산개 예돌히 흐터나와 도죽흐다가(三綱行實圖 忠 24)

그런가 하면 『訓蒙字會』(中40)에는

倭 : 예 외<sup>12)</sup>

俗稱 | 子即 | 奴有日本琉球等國

이라고 되어 있어 역시 '예'가 국어로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에는 '예', '예게', '예논', '예돌히', '예라서', '예률' 등은 물론이고 '예고초', '예나라호', '예난', '예놈', '예도적'과 같은 합성어까지 쓰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왜', '왜집', '왜난~왜란', '왜적'으로도 쓰였다.

이상으로 보면 '倭'를 가리키는 우리말로는 '예'와 '왜'를 16세기와 17세기 교체기에 宣祖는 둘다 썼다고 말할 수 있는데,<sup>13)</sup> 한자음으로는 '왜' 이외에 '외'와 '와'도 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4)</sup> 현대방언에서는 제주도방언에서 '왜놈', '예

12) 垂章閣本과 閑溪本 그리고 固城本에는 '예와'로 되어 있다.

13) 그러나 『譯語類解』(1690)와 18세기에 간행된 『同文類解』, 『倭語類解』, 『蒙語類解』, 『方言類解』 등 이른바 類解類, 諺學書들에서는 '예고초(奏椒)'를 제외하면 '왜(倭子, 同下 32a, 蒙下 28a)', '왜경(倭京, 倭下 53a)', '왜단(倭総, 方二 26a)', '왜진주(倭眞珠(東珠), 同下 22B, 蒙下 18a, 方三 18b)' 등과 같이 '왜'를 택하고 있다. '倭'에 대하여 『字典釋要』(1906)에는 '國名 나라일홀와'라 하였고, 『新字典』(1915)에는 國名으로 '예·왜'가 쓰인다고 하였으나, 『朝鮮語辭典』(1920)에는 '예'는 실리지 않았다.

14) '와'는 중국상고음에 가까우며 현대일본한자음이기도 하다. cf. Analytic Dictionary of

놈, 이놈', '왜못, 예못', '왜배, 예배, 여배, 이배'처럼 쓰이기도 하고 서남방언에서도 '왜놈, 외놈, 애놈, 예'가 쓰이고 특히 光州에서는 '兵亂을 일으킨다'를 "je-ga nan-da"라고 한다(《朝鮮語方言の研究》).

### ③ '싱심도'

너희 싱심도 전의 먹던 모음을 먹더 말오  
싱심도 의심 말고 모다 나오라

이 '싱심도'는 현대어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단어다. 쓰인다면 '焉敢生心, 不敢生心' 등의 '生心'의 뜻일 듯하다. 문헌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은 '싱심이나'와 '싱심도' 정도가 알려져 있다.

#### '싱심도'

입안히 너 꿔는 뜻보다가도 즉제 긁느니 싱심도 대조탕 빼디 말라(切不可用棗湯,  
 譚解痘瘡集要下 5b)

아희야 님이 오서든 주려 죽단 말 싱심도 말고 활빨이 그리다니(珍本青丘永言)

#### '싱심이나'

엇던 마리어시뇨○—說 싱심이나 그러한리잇가(不敢, 박통사상 58b)

엇디 싱심이나 허물흐료(怎麼敢怪, 老乞大上37)

싱심이나 어이 남기고 어그리잇가(捷解新語 三 11)

《譯語類解》(上 31)에서도 '不敢'에 대하여 '싱심이나'로 對譯하였는데, 《重刊老乞大》(上 38a)에서는 같은 '怎麼敢怪'에 대하여 "엇지 감히 허를하리오"로 번역되어 결국 '싱심이나'가 '감히'로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sup>15)</sup> 곧 '싱심이나'는 '敢히'의 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싱심도'의 경우에는 연해문에서 '切'의 대역으로 쓰이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표현에 따라 語意變化를 보인 셈이다.

CHINESE and SINO-JAPANESE(1923).

15) 《老乞大》(中央大 影印本)에서도 '怎麼敢怪(上 41b)'에 대하여는 "엇디 외오 너길고"로 '不敢說語(上 51)'에 대하여는 "말 니로디 몬 흐느니라"로 번역되어 敢의 직접적인 풀이를 알 수 없다.

#### ④ 강남비

##### 강남비와 우리나라비를 합하여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역을 일컬던 ‘강남(江南)’은 중국을 지칭한다.

中等國<sup>국</sup>은 皇<sup>황</sup>帝<sup>제</sup>에 거신 나라하니 우리나라<sup>常<sup>상</sup>談<sup>담</sup>에</sup> 江<sup>강</sup>南<sup>남</sup>이라 乎<sup>느</sup>나라<sup>訓<sup>민</sup>正<sup>정</sup>音<sup>음</sup>解<sup>해</sup></sup>

그리하여 ‘강남비’는 ‘중국배’를 뜻한다. ‘강남옹’과 같은 합성어를 제외하면 ‘강남’을 중국의 뜻으로는 현재 쓰지 않음은 물론이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당시의 언어상태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 a. 예손더 후리여서
- b. 예손더 둘려 주글가도
- c. 예손더 드렷던 거시니
- d. 이 땐들 각처 장슈의손더 다 알외여시니

의 ‘예손더’에서처럼 ‘-’ 뒤에서는 ‘-손더’가 쓰이고 ‘장슈의손더’에서처럼 그밖의 환경에서는 d에서처럼 ‘-의손더’가 쓰이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앞에서도 지적하였는바, ‘그저기면’에서 <그 적+의+면>의 조사 ‘-의’가 ‘-이’로 쓰이고 있음이 돋보인다.

### 4. 結言 : 國語學的 意義

이상에서 검토한 宣祖의 國文論書는 表記와 音韻 그리고 語彙 및 文法에서 보아 萬曆 21년의, 대체로 16세기와 17세기 交替期의 國語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시금까지의 國語史研究는 자료의 신빙성 문제로 주로 刊本을 위주로 하였다. 刊本 자료는 아무래도 文語가 바탕을 이루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筆寫本은 口語의 要素들이 加味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諺簡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古文書도 그러한 가능성은 극히 부분적으로는 보이고 있다. 임금의 글이라고 해서 늘 보수적인 성격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正祖의 編音인 《諭諸道臣編音》(1794 A.D. 奎章閣本 4168)에서 비록 간본이기는 하나 당시까지 쓰이던 '몬쳐(先)'가 '먼저'(6)로 非圓脣母音化를 보인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宣祖 國文 論書가 비록 449字의 짧은 글이지만 16세기와 17세기 교체기의 국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록 筆寫 자료지만 연대가 분명한 점에서도 당시의 국어 나아가서 국어사연구의 중요한 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기에 여기에 소개한 것이다.

### <参考 論著>

- 金完鎮(1976), 《老乞大의 謳解에 대한 比較研究》, 韓國研究院.
- 白斗鉉(1972), 《嶺南文獻語의 音韻史研究》, 太學社.
- 安秉禱(1972), <壬辰亂直前 國語史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檀學報》 33.
- \_\_\_\_\_ (1988), <한글 맞춤법의 歷史>, 《국어생활》 13.
- 李基文(1959), <十六世紀 國語의 研究>, 고려대학교, 《文理論集》 4(집출판사, 1978 再刊).
- \_\_\_\_\_ (1960), <小學諳解에 대하여>, 《한글》 27.
- \_\_\_\_\_ (1980), <맞춤법의 歷史的 考察>, 《韓國語發展研究》,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李秉根(1996), <16·17세기 諳簡의 表記에 대한 音韻論的 理解>, 《정신문화연구》 19-3(64).
- 李翊燮(1992), 《國語表記法研究》, 서울大出版社.
- 李廷燮(1988), 《宣祖國文敎書調查報告書》, 文化財管理局.
- 田光鉉(1967), <17世紀 國語의 研究>, 《國語研究》 19.

- 全哲雄(1995), <清州北·面順天金氏墓出土簡札'의 韓讀文>, 《호서문화연구》 13.
- 忠南鄉土研究會(1986), <宣祖大王의 國文敎書>, 《향토연구》 3.
- 洪允杓(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洪允杓 외(1995), 《17세기 국어사전》, 太學社.